

“지저스웨거” 비와이BewhY 현상 읽기

박진규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실행위원)



대중문화는 세상과 소통하려는 교회를 위해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 소통이란 원래 듣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하는데, 대중문화는 세상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첫째, 기독교에 대한 세상의 시선을 읽을 수 있고, 둘째, 세상 자체를 읽어 낼 수 있는 유용한 통로가 된다.

근래 대중문화로 기독교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을

읽을 수 있는 사례 하나가 두드러진다. 2016년 대중문화에서 가장 핫한 인물을 꼽으라면 래퍼 비와이 BewhY를 떠올릴 사람이 많다. 올 여름, Mnet의 랩 오디션 프로그램 <쇼미더머니>에서 우승한 래퍼로 최근에 자신의 이름을 딴 핸드폰 광고에 직접 출연하기도 하면서 그 인기를 증명하고 있다.

그런데 비와이가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그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이다. 사실 기독교와 힙합의 조합은 꽤 낯설다. 그런데 그는 <쇼미더머니> 초반부터 자신이 기독교 신앙인이라는 점을 밝히고, 자신의 랩에서도 이를 당당하게 드러내며 이 낯선 조합을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내 삶은 바로 신이 만들 예술작품의 featuring
나의 불완전함을 사용하는 창조주의 symphony
나로 인해 쓰여지는 위대한 history
어쩌면 이 모든 건 내 이야기가 아닌 his story
_비와이, "The Time Goes On"

이렇듯 비와이의 랩 대부분은 기독교적인 메시지로 가득 차 있다. 원래 랩이라는 음악 장르에서 가사는 절대적인데, 이런 가사를 빠른 비트에 실어 자신의 신앙고백을 한다. 대중들은 힙합의 정신을 표현하는 "스웨그"와 예수를 합쳐 "주님스웨그", "지저스웨그"라는 새로운 말로 비와이의 힙합을 표현한다. 인터넷에는 "비와이는 하나님께 찬송을 듣기 지켜워서 보낸 래퍼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물론 비와이 이전에도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점을 드러낸 유명인은 많이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들에게 종교적 정체성은 그들 유명세에 뒤따르는 액세서리 정도였다. 그런데 비와이의 경우는 좀 다르다. 대중에게 처음 알려지기 시작할 때부터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드러낸 가사와 행동을 보였다. 다른 래퍼들과 일명 '디스'(dis, 상대방을 공격하는)하며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쇼미더머니>에서도 이것을 드러내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한국교회가 놓치는 비와이의 Be+wh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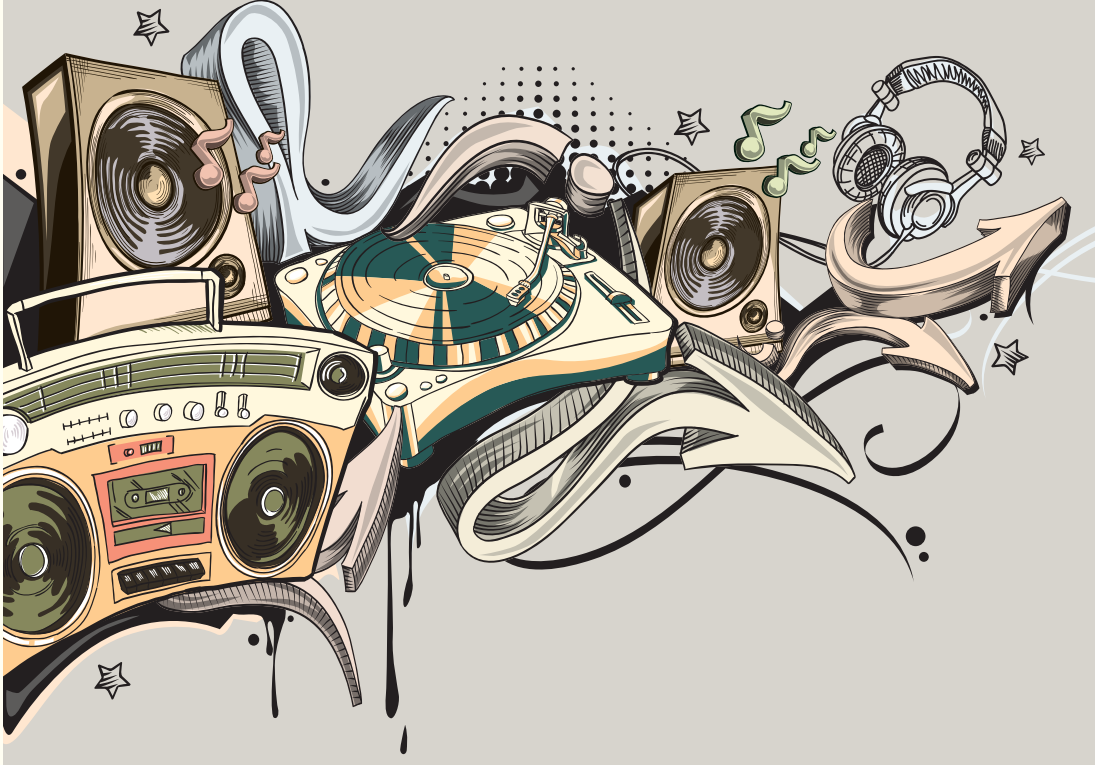
크리스천 래퍼 비와이를 바라보는 한국교회의 반응

은 뜨겁다. 비와이가 <쇼미더머니>에서 우승한 후 많은 교회의 설교예회에 그가 등장한다. 대중음악, 특히 힙합에 대해 아주 보수적이었던 교회들도 예외가 아니다. 기독교 신앙이 강하게 담긴 노래를 대중 앞에서 당당하게 불렀을 뿐 아니라, 엄청난 경쟁을 뚫고 "정상", "1등"에 오른 비와이를 아주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또 칭찬한다. 세속사회에서 성공한 크리스천의 성공담, 간증거리로서 자격요건을 훌륭히 잘 갖춘 사례라고 보는 것이다. 사실 그의 우승과 인기가 기존에 교회가 힙합에 대해서 보여 왔던 부정적 평가를 단번에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점은 흥미로우면서 일면 씩씩한 현상이다.

물론 비와이가 아주 대단한 일을 해낸 것은 맞다. 무엇보다 대중문화 속에서 크리스천의 역할을 크게 확장시킨 점에서 그렇다. 하지만 지금 비와이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현상은 단지 크리스천의 성공사례나, 바람직한 크리스천 문화사역을 보여준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비와이를 한국교회가 들어야만 하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하나의 텍스트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아주 촘촘하게 이 비와이 현상을 읽어낼 필요가 있다.

비와이 현상, 촘촘히 살펴보기

먼저 비와이에 대한 일반 대중의 반응에 주목해야 한다. 그가 크리스천임을 밝혔음에도 대중은 지금까지 비와이에 대해 매우 호의적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와 기독교인에게 보이는 일반적인 반응이 얼마나 부정적인지를 생각한다면 꽤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의 가사에 담긴 메시지는 종교적 색채가 아주 강하며 콘서트 장에서는 설교와도 같은 메시지를 던짐에도 불구하고 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오히려 열광하는 것처럼 보인다. 도대체 무엇이 비와이를 여느 크리스천들과 다르게 보이



게 만들었을까?

물론 비와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가 기독교인이라서 좋아하는 건 아니다. 그의 힙합에 기독교의 메시지가 녹아 있기 때문도 아니다. 대중이 그에게 열광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그의 독보적인 실력 때문이다. 비와이는 다른 경쟁자들과 차별되는 발성, 발음, 리듬감, 속도감, 전달력, 작사능력, 퍼포먼스 등 실력이 아주 뛰어난 힙합퍼로 인정받고 있다. 독보적인 실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사랑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평가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왜 비와이의 기독교는 이렇게 다른 반응을 얻고 있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현대사회에서 유명인, 연예인, 스타의 존재는 자주 종교적인 의미로 설명되곤 한다. 종교사회학자들은 현

대사회를 '탈종교 시대'로 규정하면서, "초월성"에 대한 관심자체가 아예 박탈된 시대라 칭한다. 그런 시대에 스타는 종교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스스로 숭배의 대상이 되고, 또 영적인 의미를 제공하는 존재가 되면서, 종교에서 말하는 "신/god"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팬들은 자신의 스타에게 절대적인 애정을 쏟아 부음으로써 스타가 그런 존재라는 걸 확인시켜준다. 이렇게 보면, 젊은 세대의 연예인들을 "아이돌(idol, 우상)"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화법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듯하다.

그런데 비와이는 이런 전형적인 스타의 문법을 비껴간다. 스스로 신이 되기보다는 자신이 믿는 신을 드러낸다. 그가 속한 장르인 힙합의 성격을 생각하면 그의 행보는 더 이채롭다. 힙합의 정수를 표현한다는 "스웨그"는 본질적으로 '자기도취', '자기만족', '허세'

등을 전제로 한다. 원래 권력관계에서 소외된 소수자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신들의 가치를 과장되게 드러냄으로써 그 권력에 저항한다는 힙합 정신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다. 지금 우리가 소비하는 힙합에는 이 정신이 꺾이기만 남아버린 감이 있지만, 어쨌든 비와이의 랩은 자기보다는 자기 뒤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자신이 아니라 그분만이 숭배의 대상이 된다고 반복해서 강조한다.

그런데 대중은 이런 메시지를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오히려 기독교인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 자칫 자신의 인기에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밝힌 것을 멋진 용기라고 칭찬한다. 대중은 비와이가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방식은 “예수천국, 불신지옥”으로 대표되는 기독교의 공격적인 모습과는 다르다고 말한다. 비와이가 신앙을 말하는 방식은 직접 전도를 하거나 믿음을 강요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간주하고, 비와이도 자기의 랩은 종교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야기이자 신념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한다.

우리는 어떤 기독교인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이제는 너무나 보편화된 기독교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중은 기독교 자체에 반감을 갖거나, 기독교 신앙을 드러내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비판은 기독교의 부정적인 모습을 향한 것이며, 기독교인에 대한 반감은 기독교인이라서가 아니라 ‘어떤’ 모습의 기독교인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세상은 여전히 기독교에 대해서 일종의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비와이가 보여준

비와이의 방법은, 직접 전도를 하거나
 믿음을 강요하는 것과는 다르다.
 비와이 스스로도 자기의 랩은
 종교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야기이자
 신념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라 말한다.

기독교를, 그 신앙의 표현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세상이 기독교에 대한, 혹은 종교 일반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거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중은 비와이를 “착한 래퍼”라고 부르고, 비와이의 음악을 “착한 힙합”이라고 부른다. <쇼미더머니>에서 경쟁자였던 래퍼 씨잼과의 디스전을 치르면서, 다른 래퍼들처럼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깎아내리는 대신에 오랜 친구 사이의 끈끈한 우정을 보여줬던 점이 나, 여느 힙합가사와는 다르게 평화와 사랑을 이야기하는 비와이의 랩을 호의적으로 평가한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기독교에 대한 불인정과 비판이 상식이 되어버린 지금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내세우는 비와이와 ‘착함/선함’을 서로 연결



시킨다는 점은 아주 흥미로우면서 또 기쁜 일이다. 사람들이 비와이에게서 찾은 '착함'은 무엇일까? 세상이 기독교에서, 크리스천에게서 찾으려는 '선함'은 과연 무엇일까? 세상과 소통하려는 교회가 꼭 알아야 할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 된다.

세상이 비와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교회에 대한 기대는 이 시대에 대안적인 가치를 추구해달라는 세상의 요청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에게 비와이가 매력적인 크리스천으로 보이는 건 그가 보여주는 모습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뭔가 다른 모습을 지녔기 때문이다.

무엇이 다르게 보였을까? 비와이는 모두가 물질만을 바라보고, 돈과 경제적 성공만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그것을 과감하게 거스르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고 외친다. 그의 랩이 다른 경쟁

자들이나 기성 래퍼들과 다르게 들리는 건 바로 이 지점 때문이다. 사람들이 비와이에게 열광하는 이유는 이런 가치를 노래하는 래퍼가 없었기 때문이다. 물질적 성공만이 최고라고 말하는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지쳐갈 때, 그것이 전부인 아니라고 말해주는 래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돈이 전부인 물질만능주의 시대에 당당하게 비물질적인 것의 가치를 외치는 래퍼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비와이의 노래 "forever" 가사처럼 말이다.

점점 들어가는 follow

돈이 생길수록 늘어나는 problem은 없어

그저 불어나는 잔고

유명해질수록 입술은 많아져

더 늘어날 걸 알아

그래서 난 더 원하지

원하지만 집착은 내게 절대 안 권하지

눈에만 보이는 달콤한 이상들에겐
난 평생 절하지 않아 당연하지
나란 놈의 존재가 계속해 거대하게 커감이
네가 있는 곳 어디든 영원히

_비와이 “forever”

세상이 우리에게 바라는 다름

사실 교회에 대한 세상의 이런 기대는 대중문화 곳곳에서 읽을 수 있다. 대중문화에 흔히 나타나는 기독교에 대한 비판도, 이런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한국교회에 대한 실망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중문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힐링’과 같은 유사 종교 현상에도 이런 기대가 담겨 있다. 세상은 우리 사회에서 종교가 이런 대안적인 가치를 이야기해 주기를 바란다.

힘든 시대이다. 현재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는 매우 비판적이다. 사람들이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 건 실망과 좌절, 피로, 고통, 그리고 신음 뿐이다. 비와이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세상을 위해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들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모습과 절대 다르지 않다.

물론 비와이 현상에 대한 다른 설명도 가능할 것이다. 무엇이 비와이를 매력적으로 만들었는지 찾아보기를 권한다. 특히 힙합문화의 주된 소비자인 젊은 세대들이 그들만의 뛰어난 감각과 감수성 속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찾아보려는 노력이 한국교회의 청년들에게 있기를 바란다.

비와이 현상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앞으로 대중스타로서 비와이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크게 달라질지도 모른다. 고도로 상업화되었을 뿐 아니라 스타에 대

한 숭배가 자연스러운 대중문화 최전방에서 그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지켜볼 필요도 있다. 힙합장르가 가진 여러 특성을 어떻게 그만의 언어로 풀어낼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다. “착한 힙합”이라는 꼬리표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도, 그를 통해서 전달될 기독교의 모습은 또 어떤 것인지도 관심거리다. “지저스웨이” 비와이를 통해서 읽어야 할 세상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 본 칼럼은 국민일보와 함께 합니다.



글 | 박진규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콜로라도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공분야는 “미디어와 종교”로서, 종교와 미디어라는 두 개의 개별 영역이 서로 교차하는 다양한 지점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